

으므로 博物館長이었던 리드大尉는 소재가 醫科大學 二學年때 볼티모어에 있는 잔즈 합킨즈大學教授인 Welch에게 細菌學 강의물 같이 갈 程度였다. 醫科大學을卒業하고 가필드 病院의 검사실에서 근무했다.

그러나 朴泳孝의 勸告로 歸國하여서 中樞院顧問으로 있으면서 獨立新聞을 經營하였다. 獨立新聞을 통하여서 保健厚生關係의 啓蒙을 하고 그 執行者는 주로 警務局과 警務廳에서 하되 예전에 捕盜廳과는 전혀 달리 民衆의 保護와 指導를 하여야 함을 說明하고 百姓을 친구와 같이 생각하라고 官吏들부터 啓蒙하였다.

上水道가 必要함을 力說하고 民衆들이 自己집과 그 周圍를 淨潔하게 하고 汚物을 없애야 한다고 力說하고 그리하여야 傳染病이 없고 健康한 生活을 한다고 하였다. 또 新聞社를 통하여 夏期衛生에 대한 애기와 巡警들이 巡察하여 民衆에게 獎勵하고 沐浴湯을 多數 設置하여 身體를 정하게 하고 人口의 調査에 있어서 出生과 死亡申告를 받아서 동네의 事情을 파악하기를 說明하였다. 迷信打破를 強調하고 소 屠殺까지도 說明하였다.

다시 美國으로 追放된 後에 美西戰爭에서 大尉로 服務하였고 除隊後에 펜실베이니아大學醫科大學大學院에 다니며 Wistar研究所에서 研究에 從事하였다. Sears病院(cancer), York病院, 잔즈 합킨즈病院 등과 St. Joseph病院(리딩市)에서 病弱으로 轉轉하였는데 체스터病院에서는 皮膚科科長으로 있었다. 한편으로 開業을 하여서 獨立運動때 蕩盡했던 經濟의 困乏을 免하였다 (臨床病理專攻).

先生의 醫療生活에서 學問研究인 發表는 St. Joseph病院에 제1 次 世계의 症例報告를 보았는데

1. Sarcoma of Ovary in a Child,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Oct., 1930.

2. A Epidemic of Trichinosis in Berk County. *Pennsylvania Medical Journal*, Oct., 1930.

3. Physical and Chemical Changes of Spinal Fluid as Diagnostic Aid for Spinal Tumor, *Pennsylvania Medical Journal*, Oct., 1931.

이 있음을 보아서 先生이 醫學研究 能力이 充分하시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先生의 一生을 통하여 볼 때에 獨立運動에 全力을 하시고 醫學은 美國에서 家族과 生活하는 데 有用했을 것 같다.

韓國의 東西醫學比較研究50年史

韓國東西醫學研究會 理事長 韓 昇 璉

우리나라에는 1876年(約 百年前) 韓日修好條約後 西醫學이 처음 合法的으로 日本을 經由하여 導入되었고 西

醫學의 行政制度가 實施된 것은 1894年(約 80年前) 甲午改革 後이다. 그러므로 140餘年 以來 우리 固有醫學으로서 發展해온 傳統的 漢方醫學과 西醫學이 並立하기 시작한 것은 約 一世紀가 된다.

이동안 漢方醫學을 現代化, 나아가서는 科學化하기 위한 時代의 自然趨勢에 依하여 東西兩醫學者들은 比較研究에 腐心해 왔으며 學術의 業績을 많이 남겨 놓았다. 이 業績들 가운데는 最近 50년에 걸쳐 더욱 括目할 만한 것이 많으므로 주로 이에 關한 史的 考證을 究明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特異한 東西醫療 二元制度를 1910年 韓日合併 後부터 現在까지 實施하고 있으며 先進國에서는 그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隣國 日本만 하더라도 明治維新 以來 約 100年間 一元化를 實施해온 까닭인지는 連斷하기 어려우나 우리와의 比較研究業績을 比해 보건대 日本은 全般的으로 先進性을 나타내고 있는 實情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保守의 傳統體制가 오래 維持되어 왔고 史的 與件이 이를 脫皮하기 어려웠으므로 東西醫人들로 하여금 比較研究의 環境造成이 不完全하였고, 따라서 研究機會가 逸失, 遮斷되어 온 여러가지 事緣들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 醫人들은 이런 環境에서도 우리 나름대로 學術交流를 위해 學會組織, 學術誌刊行, 學術大會 開催 等等의 事業을 不斷히 展開해 왔으며 比較研究의 崇高한 精神이 줄기차게 繼承되어 왔다.

이에 主要한 史實들을 들어 본다면 韓日合併 後부터 倭政時代에는 醫生에게 漢方醫療, 醫師에게 現代醫療를 各各 專擅케 하는 二元制가 實施되어 왔다. 解放 後에는 더욱 이 制度가 強化되어 醫生은 漢醫師로 昇格되고 醫師와 完全分離制度가 存續됨으로써 漢醫科大學의 設立, 同大學院創立과 漢醫學博士의 輩出까지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制度의 發展과 漢方教育問題는 人體의 疾病治療方法에 兩面이 있다는 事實을 肯定한다면 더욱 比較研究의 緊要性을 느끼게 한다.

여기에 돌이켜 보건대 이미 1923년에는 東西醫學研究會의 創設과 함께 「東西醫學原義」가 發刊되었으며, 全 29년에는 다시 東西醫學會로 組織이 強化되었으며, 全 47년에는 東洋醫藥誌가 刊行되었다. 全 62년에는 東洋醫藥大學(前 서울한의학大學)에 東西醫藥研究會가 設立되었고, 全 70년에 慶熙大學校에 慶熙東西醫學研究所, 全 71년에는 全國東西醫人들이 蹶起하여 일찌기 보기도 드문 汎國家의 團體로서 韓國東西醫學研究會를 創立하

었다. 이것은 先輩들의 比較研究精神과 趣旨을 繼承 再建한 것이다.

本 研究會는 이제 六周年을 맞이하며 그동안 亞細亞 學術大會, 韓國鍼灸學術大會 等の 學術集會와 圖書出版으로 「韓國東西醫學研究一世紀紀念論文集」을 들 수 있다. 이런 學術事業에는 國內外的 東西醫人들이 積極的으로 參與하고 있으며 앞날의 研究交流에 밝은 曙光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比較研究50年史는 출기찬 先輩들의 精神的 遺産의 繼承이며 東西醫學 比較研究의 課題는 우리 民族保健에 直結되는 重要な 事實임을 痛感케 한다.

第16回 「全國歷史學大會」
科學史部會

1978. 5. 26

新羅의 天文學

外大 朴 星 來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의 天文學에 관해서는 아직 종합적인 연구가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瞻星臺에 관해서만은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왔고, 日食記事에 관해서도 꽤 연구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종합적 연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三國史記의 기사 중 가장 많은 분량은 사실상 天文關係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방면의 보다 깊은 연구는 史料不足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古代史研究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늘날은 과거의 인구와 증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①三國史記의 天文曆算制度에 관한 기록을 검토해 보고 ②日食記事만이 아닌 災異記錄 전부를 몇가지 측면에서 분석·검토해 본 후 ③新羅史의 時代區分論과 관련지어 天文學史時代區分을 시도함으로써 一般史와의 연관을 꾀해 보려 한다.

54 B.C.(혁거세 4년)의 日食, 49 B.C.(혁거세 9년)의 彗星 등 國初부터 많이 기록되어 있는 天文觀測記錄을 제외하면, 新羅의 天文關係記事 중 처음 三國史記에 기록된 것은 536년(法興王 23년)에 建元이라는 年號를 썼다는 것이다. 그러나 金石文에 의하면 511년

(智證12)에도 延壽라는 年號를 쓴 것 같아 그로부터 약 150년 동안 新羅는 독자적 年號를 쓴 것으로 되어 있다. 天文學上 年號가 중요한 것은, 그 사용은 曆法이 어느 정도 발달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天象의 변화에서 알아낸 曆의 발달은 또한 歷史의 인식으로 발전하게 마련이다. 545년(眞興王 6) 新羅가 처음으로 國史編纂을 시작했다는 기사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6세기 新羅人이 사용한 曆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당시의 新羅人이 복잡한 天文觀測과 그에 기초를 둔 曆計算을 해 낼 능력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고 보면, 6세기 新羅에서 쓴 曆은 中國曆의 모방이었을 것이 틀림없다. 늦어도 377년(中國側史料) 또는 381년(三國史記)부터 新羅는 中國에 사신을 보냈으나 이웃 百濟나 高句麗와는 달리 그 후 100년간은 완전히 中國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었다. 502년(智證王 3) 다시 中國에 사신을 보낸 新羅는 그 후 508, 521년에만 遣使한 뒤 536년에는 建元을 해 버린 것이다. 그 뒤 564년부터 新羅의 對中國外交는 궤도에 올랐다.

이런 사정으로 보아 新羅가 6세기에는 사용하기 시작했음이 틀림없는 曆이란 百濟나 高句麗를 통해 얻어온 中國曆의 變形이었음이 짐작된다. 564년 中國과의 外交關係가 정상화된 뒤에도 中國曆은 한참 동안 직접 받아오지 못했던 것 같다. 648년(眞德女王 2) 唐의 太宗이 新羅使臣에게 독자적인 年號使用을 힐난하자 그使臣은 新羅가 독자적 年號를 사용해온 까닭은 唐이 頒曆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년 뒤인 650년부터 新羅는 唐의 年號를 채용하고 그 후 이것이 慣行이 되었다.

이리하여 650년부터는 唐의 曆을 받아 사용했음이 틀림없다. 이러한 여건에 발맞추어 674년에는 大奈麻 福德이 처음으로 唐에서 曆算學을 배우고 귀국했고 그로부터 새 曆法을 사용했다. 이때부터 비로소 新羅는 中國의 曆常數만 가지던 독자적인 曆計算(節氣와 置閏 등)을 해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曆關係記事로는 695년에 子月(11月)을 步首로 고쳤다가 700년에는 다시 寅月(1月)을 步首로 고친 일이 있는데 이는 則天武后의 改曆을 따른 결과로 그 후 계속 中國曆法을 따르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天文·曆算關係의 官制는 어떻게 발달해 왔는가? 新羅가 中國制度를 본받기 시작하는 것은 6세기 이후의 일이며, 그 중 天文制度는 더 늦게 배워온 것으로 나타난다. 善德女王 때 瞻星臺가 세워진 기록이 있고 半世紀뒤인 692년에는 僧道證이 唐에서 天文圖를 가져온 기록이 있다. 그 후 718년에는 漣